

종교개혁 읽기 『꺼지지 않는 불길』

종교개혁의 현장 속으로



마이클 리브스 지
박규태 역
복있는사람

우리가 속한 개신교(改新敎, Protestantism)는 한자어로 ‘고쳐서 새롭게 한 종교’, 영어로는 ‘저항운동’이라는 의미다. 이 단어에는 악습을 끊고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루터가 주도했던 개혁의 역동성이 담겨 있다. 거기서부터 생성된 가치와 구조는 힘찬 물줄기가 되어 45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 곳곳에서 도도히 흘러 파도치고 있다. 한국 개신교도 분명 한 세기를 호령했던 그 개혁의 물결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종교개혁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거나, 기껏해야 단편적 지식의 조합으로 상당 부분에서 왜곡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마이클 리브스(Michael Reeves)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하 『불길』)에서 종교개혁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제를 독자에게 선물한다.

마이클 리브스는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이나 영국 복음주의의 정통을 잇는 차세대 주자로서 왕성한 강의와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강의와 저술은 그의 주된 관심사가 종교개혁을 잇는 신학에 있음을 말한다. 『불길』에는 리브스의 이런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본서는 총 7장으로 편집되었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1장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두 번째 부분은 2장에서 6장까지 여러 개혁자들을 소개하며, 세 번째에서는 종교개혁이 현대교회에 미치는 지속적인 의미를 파헤친다.

첫째 부분에서 저자는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중세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추적한다. 많은 이들이 ‘중세=암흑기’로 단순화시켜 규정하고 종교개혁이 암흑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였다고 쉽게 결론 내린다. 또 다른 편에서는 중세 민중의 종교는 매우 긍정적이었기에 종교개혁은 일단의 무리가 주도하는 반정서적 운동이었다고 치부한다. 저자는 이런 양 극단의 견해를 비판하며, 당시 로마교회와 중세시대를 감상적으로 판단하려는 시도를 멀리하며 종교개혁이 오기까지의 역사적 진술을 통해 태동의 정당성을 독자에게 호소한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은 단순한 도덕 갱신 운동이나 완전한 새로운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선인들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열망이 하나로 모여져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와 세상을 바꿔 놓는” 말씀운동이었다.(p.30) 안 후스나 존 윌리엄 리프는 본서에서 중세와 종교개혁을 잇는 주요 인물로 다루어진다.

저자는 이어 종교개혁의 다섯 주제에 따라 그 성격과 유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마르틴 루터 / 윌리히 츠빙글리 / 장 칼뱅 / 영국의 종교개혁 / 청교도, 이 다섯 개념이 종교개혁의 전부는 아니나 이것들 없이 종교개혁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저자는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후세대에 걸쳐 있는 상이한 인물과 주제를 자신만의 뛰어난 역사진술 방식으로 현장감 있게 소개한다. 저자는 다소 복잡한 역사적 사건도 평신도 독자

가 이해하도록 어렵지 않게 배려했다. 글이 수월하게 읽히는 것은 필력의 도움과 더불어 본서가 '종교개혁 = 말씀운동'이란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교개혁이 말씀운동이었기에 개혁자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신칭의 교리를 주저함 없이 선포할 수 있었다. 저자는 루터의 이신칭의 구원론을 이렇게 평가한다. “[루터에게] 믿음은 수동적 일로서, 그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p.77)

종교개혁자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는 당시 교황이 지배하던 세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시민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면서 사회의 구조와 철학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칼뱅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제네바는 “프랑스에서 핍박을 받던 개신교 신자들에게 매력의 넘치는 곳”으로 변모되었다.(p.166) 그 결과 평신도에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부분에서 저자는 종교개혁의 유산이 현대 교회에도 여실히 중차대함을 밝힌다. 칭의 교리는 변함없이 도전받고 있으며 동시에 수많은 죄인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 특별히 저자는 복음주의권 내에서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불편하며 일침을 놓는다. 로마 교회가 칭의를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향한 선언이 아니라 죄인이 거룩하게 자라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한, 21세기 두 진영의 동거에 대하여 루터가 들었다면 그의 “입이 찢어져 턱이 바닥에 닿았을 것이다.”(p.283)

『불길』은 한국교회 독자에게 몇 가지 특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저자는 개혁자들에 대한 공정한 진술로 역사를 평가한다. 독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을 담대한 용기와 명석한 지혜를 가졌

던 영웅으로 이해하기 쉽다. 저자는 독자의 편견에 객관적인 진술로 응수한다. 개혁자들이 운동을 주도하며 보였던 인간적 약함과 역사적 한계를 본서 곳곳에 밝힌다. 이는 독자들에게 종교개혁이 인간의 역사 뒤에 계신 손길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은연 중 주장하는 것처럼 들린다.

또한 『불길』은 분량에 비해 다소 많은 양의 역사적 정보를 제공함에도 저자의 일관된 주장을 쫓아가며 지루할 틈 없이 정독할 수 있다. 리브스는 학자다운 예리함으로 다양한 역사 진술을 산만하지 않게 일관된 신학적 흐름을 주도하며 소개한다. 종교개혁의 신학적 맥을 정확히 짚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관심 있는 독자는 마치 낯선 지역의 여행이 긴장스러운 흥미를 주듯 평신도로서 알기 어려웠던 종교개혁의 의미를 접하게 될 것이다.

다만 종교개혁이 교회 내 운동을 넘어 직업, 학교, 가정 등 대사회적으로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비워둔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매우 간단히 언급만 될 뿐이다. 루터가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통해 보았던 것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 성도의 영적/사회적 자유였다. 직업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국가와 정치의 현대적 개념이 세워졌다. 별도의 한 챕터로 언급되었으면 금상첨화였으리라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아마 입문서로서의 분량과 구성의 한계 때문인 듯하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임을 자처하지만 단편적인 지식적 한계는 깊이 있는 교회와 미래의 비전에 걸림돌이다. 『불길』이 평신도 독자에게 종교개혁사의 입문서로서 주저 없이 선택되어 읽혀지길 바란다. 그래서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이 21세기 위기의 시대 속에서 교회로 선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어 “온 세상이 결코 끄지 못할 불”로 부활하길 고대한다. 



우상현 삼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며, 삼일교회 기독교세계관 아카데미(SWA)의 시작과 함께 1년 동안 기초를 다지는 사역을 감당했다. 충남대학교 수학과(B.S.), 홍익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London Theological Seminary(설교자 과정),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에서 수학하였다.